

다산포럼

김정남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탓이었지만,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예부터 '은자의 나라'라고 생각해왔다. 한 술 더 떠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나라'라는 데 일말의 자긍심마저도 가지고 있었다.

패권이 판을 치는 국제정세에 끼어들어 부화뇌동 하지 않고 초연히 비켜서서 '수기치인'을 가장 바람직한 덕목으로 하여 자기정체성을 지켜 나온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었던가 싶었던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죽림에 조용히 은거하여 세상을 관조하던 그들 은자에 대한 연민도 나로 하여금 '은자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또 19세기 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분명,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그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가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섭정으로 펼쳤던 일련의 자주적 개혁정책이 좌절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거기다 그 이후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역사로 배우면서, 쇠국이 차라리 애국의 길이자 곧 자주의 길이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었다.

조선은 '쇄국과 은자의 나라'라고 보는

데 대해 가장 열심히 반론을 펴고 있는 대표적 인물인 '문명교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정수일(鄭守一)교수이다.

그에 의하면 '은자의 나라'라는 말은 무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

지의 소치이거나 작위적 오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조선을 '쇄국'으로 오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화적 역사 인식일 뿐만 아니라 쇄국정책은 한때의 임기응변책이요 한순간의 요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결코 '닫힌 나라', '은자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그의 저서 '한국 속의 세계'(창비·2005)에서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 설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라는 이미 '로마문화의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로마와 교류했으며, 고려인들은 이웃나라들에서 나온 대장경들을 죄다 가져다가 보란, 겹토 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완벽한 '팔만대장경' 5천2백만자를 완성해 불교를 집

대성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무역활동은 동북아3국의 국제관계를 일변시키고, 해상강국 고려의 건국기틀을 마련했다. 고려시대 '오는 자는 막지 않는다'(來者不拒)는 수용정책으로 외래인들을 대량으로 귀화시켰다. 세계종교사상 서양종교를 타율적 선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오로지 조선뿐'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결코 담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만 혼자 살고자하는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20세기 들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쇄국'의 폐쇄적, 패배주의적 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가난한 우리 이웃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편견과 거기서 야기되는 인권문제가 그렇고, 우리는 단일민족, 배말겨래라는 지나친 순혈주의가 또한 그렇다. FTA에 대한 태도와 정서도 문제다. 국익과 자존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만 번 배말겨래한 일이로되, 무조건 반대하거나 두려워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민족은 그 건국신화에서부터 세계와의 상생과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미·일·중·러의 4대강국에 집중되어있는 한국교포의 분포는, 남북한과 교포사회가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 인류문명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헌신하라는 하늘의 메시지로 나는 읽고 싶다. 지식정보사회로의 문명적 전환은 자원이 없는 대신 잘 교육받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더 넓은 세계 속으로 나와 활동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인력을 비롯, 안에서 북적댈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세계 속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은 민간영역에서만 아니라 국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살길은 앉아서 성을 쌓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다. <인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미경



삼성테크노주식회사는 주월동 953-3번지 일대에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을 신축할 예정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지난 19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본 권을 상정하였다.

홈플러스 주월점 입점 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백운교차로 주변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왔다. 대형화지난주 교통영향평가가 있기 직전 백운교차로 시유지 1천321㎡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심의위에서도 홈플러스 측에 백운교차로 일대의 교통처리 대책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의 부결을 결정하였다.

백운교차로에 홈플러스 신축 안된다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운교차로와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이다. 광주의 5대 관문의 하나로 중요한 교통요지임에도 백운교차로는 심각한 차량정체를 겪어왔다. 이곳에 대규모 교통유발 업종인 유통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백운교차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광주시장은 도시의 미관과 백운광장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이유로 백운교차로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백운교가 철거 후의 신호체계 등의 차량흐름이 지라도 방직인지, 지상교차로 방식인지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홈플러스가 입점되면 백운교가 철거 논의 자체가 원점에서 출발해야 할 우려가 있다. 주변지역의 교통정책

진반이 흔들릴 정도로 홈플러스는 교통정책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는 관컨터미널 인근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더 이상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함께 각종 세금이 투입되고, 활성화대책을 제시되면서, 그러한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유통업체를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전문가들은 이미 광주에 대형유통업체가 포화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무공해 농산물 코너서 농약 냄새 나는 야채 판매 해서야

얼마전 대형 할인매장의 무공해 코너에서 야채 모습을 팔고 있어 가족들과 야채 비빔밥이라도 해먹자는 생각에 넉넉하게 사가지고 왔다. 주방에서 야채를 씻으려는데 비닐 봉지를 푸는 순간 코를 확 찌르는 농약냄새가 났다.

농사를 짓다보면 일정량의 농약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것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농약을 하는것이 어쩔수 없는 일이다. 안그러면 병충해 때문에 수확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할인매장이다. 일반 농산물 코너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지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되어 있다.

광주시장의 사유지 매각 않겠다는 선언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는 있었으나 이미 남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내 도시계획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홈플러스 측에서는 입점을 불가능하게 했던 난제 1개는 극복한 처지이다. 홈플러스 소유로 부지가 계속 존재하는 한, 아니면 다른 기업의 소유가 되더라도 홈플러스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 다시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남구청에 제출될지 알 수 없다.

이제 유통업체에 대한 광주지역 내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와 달리 무공해 농산물 코너는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아 수확량이 극히 적다는 이유로 값이 비싸다. 그것을 감수하고서 무농약 농산물을 산 것인데, 농약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민들은 정직하게 일해서 농산물을 판다. 하지만 중간 업자와 판매장에서 속여 팔면 농민들만 욕먹는다.

소비자가 매장에 쫓아가서 농약잔류허용치를 측정해보자고 할수도 없는 노릇. 서로 믿고 살도록 양심껏 영업해주기 바란다.

▲홍에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반달가슴곰 복원

우리나라에도 옛날 불곰·동굴곰·반달곰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동굴곰은 빙하기 전후에 세계적으로 멸종됐다. 불곰의 경우 수많은 사냥꾼 이야기에 등장하듯 일제 시대 전까지 꽤 많이 살았던 것 같지만 지금은 북한에서만 몇 마리 정도가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반달곰은 어떨까?

전국에 걸쳐 발견됐던 반달곰은 지금 북한 일부 지역과 지리산에 5~6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복원사업(50마리 정도로 늘리는 사업)이 지리산에서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야생 곰들도 가끔씩 들려오는 근거 없는 동물 발견 이야기처럼, 주로 그림자 혹은 똥이나 발자국을 보았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도 아니었다.

정말 곰이 있다면 그 동안 웅담채취를 위해 무분별하게 들어온 사육곰들이 탈출해서 야생화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빈약한 추론 위에서 시작된 탓인지 현재 복원사업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국립(중곡, 러시아산)이 다른



반달곰을 이용, 복원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의 잦은 접촉은 곰과 사람 모두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한 곰 절반은 이미 죽거나 다시 가두어졌다.

'자연 복원'이라는 말, 하기는 참 쉽다. 하지만 한번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은가.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차량 내 소화기 비치, 화재 사고 대비 하길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 중 장시간 히터사용 등에 따른 엔진 과열 등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해 5천929건 발생하여 사망자만 46명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초동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인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소홀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빠른 대처로 발생률을 비해 인명 피해는 적은 편이나 화재 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 할 경우에는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및 연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

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 화재의 경우 신고 받고 119가 출동 하더라도 사고 현장 도착시에는 이미 차량이 전소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차량용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만원~2만원이면 차량용 분말소화기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길이다.

▲김춘호·니주소방서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또 문화전당 지역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아시아문화전당 종합계획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동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비상대책위는 22일 문화전당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돼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주무부서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종합계획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둘러싸고 그동안 주무부서인 문화부와 조성위원회, 광주시, 지역 예술계 등과 마찰이 계속돼 왔다. 지역 일각에서는 문화전당 기공에 산입화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 등 광주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문화전당이 광주시민이 문화를 통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문화생산지구로 조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사업을 지역 여론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역발전은 바라

는 지역민의 생각과 문화중심도시라는 큰 틀에서 문화전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 등의 이유로 지역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와 지역민의 이 같은 시각차는 양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부의 주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문화부와 광주시, 조성위원회 등 추진주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주도의 큰 사업일수록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부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문화전당을 둘러싼 마찰과 잡음이 계속되는 것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국민 안중에 없이 대선놀음인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임종인 의원이 22일 전격 탈당함에 따라 당 사수파와 탈당파간 진흙탕 싸움이 본격화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은 자질검증 공방을 벌이며 상대방 흡입대기에 한창이다. 청와대가 개헌 카드로 새해 정국을 흔들던데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채 대선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내분양상은 낫이 뜨거울 정도다. 임종인 의원의 탈당으로 2개 일터동안 지지부진하던 탈당 사태가 시화되면서 탈당 수순과 방법을 둘러싸고 갖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결별설도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불행사냥가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성싸움이 위협수위를 넘어섰다. 박 전 대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지도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지도자"라며 이

전 시장을 겨냥하자 이 전 시장은 "애를 내야 봐야 교육(보육)문제를 얘기할 자격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당내에서조차 "애들싸움 같다"며 경선 과정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개헌의 당위성 설화에 나선 청와대와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실망스럽다. 여야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대의명분이나 소속정당을 위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없이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여서는 공멸할 수 있다.

정치권이 대선과 개헌에 몰두해선 민생이나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불황과 늘어나는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핵과 부동산 문제 등 국가현안도 산적해 있다. 정치권은 국가를 의식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無等鼓

'1주일에 9억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 꿈을 빌리더라도 감히 그려볼 수 없는 황재다. 미국의 프로축구팀 LA 갤럭시 시로 이적하면서 5년간 1억2천800만파운드(2천367억원)를 받기로 한 슈퍼스타 데이비드 베컴(레알 마드리드)의 주급이다. 갤럭시 선수 평균 주급의 500배가 넘어 동료선수들이 분노를 느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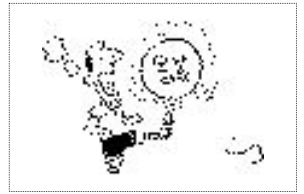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버블' 논쟁이 일고 있다.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추진하던 농협이 '간만 보고 슬그머니 빠져 버리자 속된 감정인 구단 운영비와 몸값 인플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자 구단' 삼성의 지난 2005년 한해 운영비가 400억원 정도였는데 그중 3분의 1이 심정수와 박진만, 김한수, 임창다.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추진하던 농협이 '간만 보고 슬그머니 빠져 버리자 속된 감정인 구단 운영비와 몸값 인플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자 구단' 삼성의 지난 2005년 한해 운영비가 400억원 정도였는데 그중 3분의 1이 심정수와 박진만, 김한수, 임창

용 영입에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모든 구단의 운영비중 70~80%가 연봉 등으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화의 김인식 감독은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수들도 자신의 몸값 요구에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프로야구와 달리 연봉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프로축구의 톤 단위는 더 세다. K-리그 감독 11명중 9명이 선수 몸값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이대로 가면 몇 년 후 문 닫는 구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셀러리 캡(팀당 연봉총액상한제)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봉의 고공행진에 무조건 반쪽을 걸핀 없다. 다만 그들의 몸값이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능력, 상품권 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중없는 그라운드에서 구단만 뛰는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인쇄대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